

2013년을 보내며

한해를 보내려 하면 회상에 젖게 됩니다. 계획 대비 실적을 따져가며 무엇을 했는지 무엇이 남아있는지 꼼꼼이 생각해보는 것도 습관과 같은 일입니다. 연구원은 또 한 해를 보내며 무엇이 달라지고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어제와 오늘이 같아 보입니다. 어제보다 못해지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행한 연구과제 수, 품질, 각종 세미나 개최 건수, 직원 수련회, 정부나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 언론 노출 정도 등등 크게 변화가 읽혀지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전에 없었던 일이 발생한 것은 크게 제 기억에 남는 것으로 나주 신청사 기공식, 대통령 보고, 농민신문사와의 현장토론회 기획, 2012년 최우수 기관평가, 농식품부 장관 배출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나쁜 일들은 기억에 남을 만한 것들은 없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자기 본분을 다하고 한발씩 더 나아가려는 노력을 함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연구원은 정부와 연구수혜자로 부터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나주혁신도시 청사 기공식을 위해 며칠 밤낮을 고생한 직원들, 연구원 처음으로 승인통계를 만들어내고 성황리에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연구팀, OECD 농업환경공동작업반(JWPAE) 의장 선출을 비롯해 연구와 행정분야에서 많은 직원들의 값진 수고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서로에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았으면 합니다.

정든 사람이 떠나고 서먹한 새사람을 맞는 일은 아쉬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청춘을 바쳐 연구원에 기여한 다섯 분이 올해 연구원을 떠나고 떠나는 수 정도의 새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전에 없이 많은 수의 식구들이 바뀌는 것이지만 앞으로 연례행사처럼 있을 일이기도 합니다. 연구원의 자산은 사람뿐인데 그 많은 경험과 연륜을 숫자만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최소한 정년이라는 제도적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연구원을 떠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누구나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연구원 가족을 바라볼 수 있다면 큰 행복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의 틀 속에서 최대한의 뒷받침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박사급 연구원의 초임 인상, 승진 인센티브 확대, 팀장 발령, 연구원급 채용 확대, 정규직 전환 등이 이러한 구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사람과 관련된 일은 언제나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원내의 인사문제와 평가문제는 대외적으로 아쉬운 소리를 하러 다니는 일보다 어렵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밟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원칙에 의해 선을 긋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느 부서 어떤 자리는 몇 년 근무를 원칙으로 교체한다든가, 최대한 원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평가의 변별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순환적으로 등급을 결정하겠다는 것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개인별로 일일이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저 제 머릿속에 넣어 두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원칙과 투명성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연말 평가에서 섭섭한 결과가 나왔더라도 내일이 있다는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경험이 쌓인다 해도 항상 무엇이든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소통입니다. 제 성격상 호불호가 분명하다보니 소통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괜한 오해(제가 볼 때)를 불러 오기도 하는 것으로 압니다.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보니 의도하지 않게 소홀히 넘긴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더 자주 찾아주십시오.

2013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력이 그만큼 자산으로 쌓여 인생에 향기를 더할 수 있었으면 더 바랄게 없습니다.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